

美·英 명소, 명상센터·사찰로 거듭나

미국과 영국에서 지역 불교계의 노력으로 해당 지역의 명소가 불교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DNAINfo.com Chicago' 와 'RUNCORN&WINES Weekly News'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2011년 6월 막을 내린 오프라 윈프리 쇼(Oprah Winfrey Show)와 함께 대중에게 주목을 받았던 '오프라 스토어(Oprah Store)'가 올 여름 명상센터로 거듭나고, 체셔(Cheshire)주 런콘(Runcorn)시에서는 BBC 인기 시트콤 무대로 널리 알려진 '런콘 펍(Pub)'이 오는 4월 태국불교계 사원으로 변모한다.



백인의 미국인들이 샴발라(Shambhala) 명상센터에서 명상 교육을 받고 있다.

美 시카고 '오프라 스토어', 샴발라 명상센터로 英 '런콘 펍', 프라 싱 사원으로

inspired organization의 부설 기관으로, 지금까지 명상 수업과 지역사회 오픈 강좌를 열어왔다.

"이런 공간을 찾는 게 행운"이라는 토마스 골츠(Thomas Golz·샴발라 명상센터 운영위원장 부위원장)는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 입주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센터 방문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포 스튜디오 측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 스토어는 2008년 1월 시카고 도심에 '윈프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란 콘셉트로, 오프라 윈프리 쇼(The Oprah Winfrey Show) 녹화 장소였던 하포 스튜디오(Harpo Studios) 건너편에 문을 연 브랜드숍이다.

윈프리의 팬들은 이곳에서 윈프리가 방송 중 입었던 옷이나 추천 도서와 음반, 그리고 '오프라' 라벨이 붙은 다양한 기념품

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막을 내린 후 오프라 스토어도 문을 닫았다. 현재 이곳은 비어 있는 상태다.

한편 영국의 런콘 윈즈 위클리 뉴스(RUNCORN & WINES Weekly News)는 14일 "BBC 방영 인기 시트콤의 배경이었던 런콘 펍(Runcorn Pub)이 오는 4월 태국 신년축제인 송크란(Songkran)을 맞아 프라 싱 사원(Wat Phra Singh UK)으로 개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 싱 사원(Wat Phra Singh UK) 개원 준비위원회 대변인 토니 콜라코트(Tony Collacott)의 말을 인용, "현재 런콘 펍은 사원으로 개축된 상태"라며 "지난달 말 영국 국경청의 비자 승인을 받은 5명의 태국 스님들이 2년간 프라 싱 사원에 주석하며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프라 싱 사원 개원 준비위원회는 지역 불자 1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기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불교계의 숙원 사업인 사원 개원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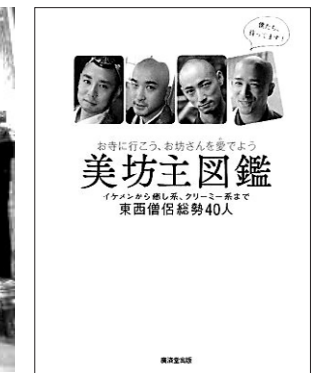
런콘 펍은 BBC 최장 방영 시트콤인 'Two Pints Of Lager And A Packet Of Crisps'의 주요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잡아왔다. 2001년 2월 26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방영된 이 시트콤은 영국의 대표 드라마 작가인 수잔 니슨(Susan Nickson) 작품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에 '승려 바' 생겨...여성들에 인기

꽃미남스님 망라한 <미스님도감> 1만부 팔려



커피를 만들고 있는 스님(좌)과 <미스님도감>표지(우).



일본 도쿄의 한 카페에 주인과 종업원 모두가 스님인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승려 바(bar)'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이 승려 바는 5명의 종업원이 모두 스님으로 구성됐다. 실내에는 불단을 설치해 매일 예불을 올리면서 입소문이 났다. 특히 퇴근하는 여직원들이 주요고객이다.

스님들은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커피도 만든다. 또한 카페 안에서 불경도 읽고 손님들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계를 지켜야 하는 스님이 술을 판다는 것이 와 닿지 않지만, 이런 카페가 뜨고 있는 데는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일본인들의 특성도 한몫 한다.

후지오카 스님은 "일본인은 술을 마셔야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일본의 독특한 포교 방식은 책과 잡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012년 2월에 발간된 <미스님도감(美坊主圖鑑)>이다. '일본의 아름다운 스님 애호회'라는 단체에서 펴낸 이 책은 일본 전국 사찰의 20~40대 승려 40명의 프로필을 확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스님들은 빼어난 외모의 꽃미남계 외에도, 따뜻한 인상의 훈남 스님, 부드러운 이미지의 크리미계 스님 등 특징별로 분류돼 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초판 1만부가 팔려 나갈 정도로 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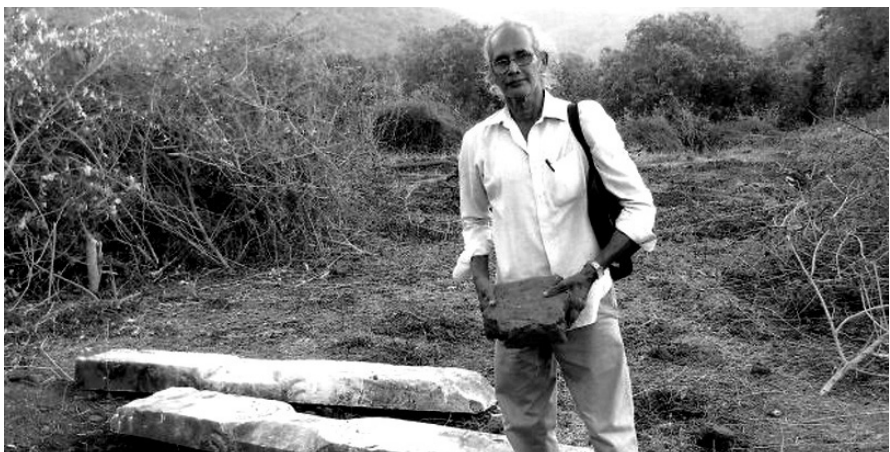
본 불교 각 종파의 스님들을 망라했다. 연극배우, 항공자위대, 복서 출신 등 스님들의 전직도 다양하다. 책에 등장하는 고야산 진언종의 한 스님(29세)은 취미가 해비메일을 듣는 것이며 승려가 되기 전에는 핑크색 정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불교가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주목 받는 것은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 등 여성 특유의 시대 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교와 승려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기보다는 젊고 잘생긴 청년 승려에 한해서다.

일본의 승려들은 대부분 결혼이 가능하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미혼 스님들이 참가하는 '좌선미팅'을 열 정도다.

이밖에 잡지 중 상당수는 불교 특성을 연재하고 있으며 격월간 '프리스타일 승려들'이란 잡지까지 나왔다. 전국의 청춘 승려를 소개하며 자유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일본 불교교단도 이 같은 상황을 반긴다고 전해진다. 중생들에게 안심·위로·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 본래의 기능이면서 불교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양경제'는 "잘생기고 친절한 승려들이 일과 연애, 인생에서 고민하며 헤매는 여성들을 치유하고 응원해 준다"고 분석한다. 이나은 기자



크리슈나(Krishna) 지구의 고대 불교유적을 처음 발견한 카디아라 벤카테스와라 라오(Kadiyala Venkateswara Rao) 박사.

인, 사타바하나 왕조 불교유적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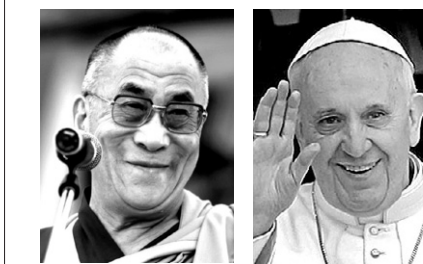
인도 크리슈나(Krishna) 지구에서 대규모 고대 불교유적이 발견됐다.

인도의 더 힌두(THE HINDU)는 14일 고고학자 카디아라 벤카테스와라 라오 박사의 말을 인용, "크리슈나 인근 폰두굴라(Pondugula) 마을에서 사타바하나(Satavahana) 왕조와 그 뒤를 이은 이크슈바쿠(Ikshvaku) 왕조에 속하는 고대 불

교유적이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속속 발굴되고 있는 대리석 조각의 규모를 볼 때, 이 곳에 거대한 탑과 승원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한 라오 박사는 "물(水) 저장고로 보이는 유적의 발굴이 본격화되면 승원의 규모와 당시 대중의 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라마, 프란치스코 교황에 축하



달라이 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77)는 3월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데 축하를 보내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즉위명으로 선택한 것을 칭송했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성하의 즉위에 축하 인사와 환희를 보낸다"며 "성하가 성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도 16세의 즉위명과 과거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 봉기 54주년 맞아 세계 곳곳서 시위

3월 10일 '티베트 봉기' 54주년을 맞아 아시아 곳곳에서 중국 강압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반중국 시위를 벌이려던 티베트인 18명이 경찰에 억류됐다"며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주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5명 티베트인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인도 뉴델리와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티베트인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면서 완전한 자치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귀국 허용 등을 요구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베이징 당국에 강압 통치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이 티베트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한편 중국 공안 당국은 3월 10일 '티베트 봉기 기념일'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와 시내 중심지 경비를 강화하고 검문소를 설치했다. 이나은 기자

호주 유명진주회사 불교 컬렉션 출시

호주 유명 진주얼리 브랜드인 파스팔리 펄(paspaley pearl)이 불교를 컨셉으로 컬렉션(시진)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파스팔리로 깨달은(Enlightened by Paspaley)'이라는 주제로 출시된 제품은 호주 남해 진주위에 부처가 앉은 형상을 약세사리 세트를 출시한 것. 파스팔리는 특허를 딴 커팅기술로 제작된 불상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고리를 세트에 제작했다. 파스팔리는 1930년대 탄생한 기업으로 이나은 기자



호주의 가장 큰 남양배진주 회사로 유명한 파스팔리는 1930년대 탄생한 기업으로 이나은 기자

“구국(救國)의 일념(一念)에서” 전국승려(全國僧侶)와 불교신도(佛教信徒)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팔천만 동포가 한사람도 죽어서도 죽어도 안된다.

불교는 불상상 이타행(不殺憐他行) 평화세상인 이상향(理想鄉)을 지향(指向)하는 유일(唯一)한 종교입니다. <<고성염불심종공덕(高聲念佛十種功德)>>에서 願法界 諸衆生 同人彌陀 大願海 盡未來際度衆生 自他一切咸成佛道 원하옵시다. 같은 땅위에 살고있는 모든 중생들이 우주의 가장 높은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이상향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도하기를 소리 높여 염불로 기도 합니다. 염불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 깨달음은 경각(正覺)의 종교라 합니다. 이제 부처불가(不知不見) 알지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염불한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서원(誓願)을 들어주셔서 자타일심불도(自他一切咸成佛道)하여 세계화(世界化)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업(大業)을 완성(完成)하려면 부처님께서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신통도력(神通道力)을 증기(證悟)해야 하고 그 방편(方便)은 위성통신망(衛星通信網)을 이용(利用)하여 세계(世界)에 알리야 하고 지구촌 세계가족(地球村世界家族)이 동참(同參)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순간까지 전 불교인들의 신행(信行)은 있는 그대로 존치(存置)하고 새출발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평화와 불국토(佛國土)를 성취(成취)하는 선취(先取)하는 IT세대가 편집(편집) 보도편을 독립하여 기성불자들에게는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초고속으로 몸과 마음에 건강을 찾게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이고 세계각국에 전법(傳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승려(僧侶)들이 모르는 불법(佛法)을 기자(記者)들이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쉽고 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금강경(金剛經)에 대승정종본(大乘正宗分)이 있습니다. 세계 가족이 한배를 타고 항해(航海) 하듯이 한가족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법화경약장계(法華略略義)에 "일승도법연화경(一乘妙法蓮華經)이 첫구절입니다. 대승(大乘)과 일승(一乘)은 동의어(同義語)인데 세계가족(世界家族)이 70억명이 넘으니 대승(大乘)이라 했고 지구촌(地球村)이 한통내 이기에 일승(一乘)이라 했습니다." 또 이 계승에 "석제환인월천사(釋迦牟尼因月天) 단군신화에 천신(天神)인 환인이 민족종교와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모법연화경(妙法蓮華經) 서품(序品)에 환인(桓因)이 나옵니다. 또 원효선사가 저술한 미륵경 마하가섭(彌勒經 摩訶迦葉) 편에 석제환인(釋迦牟尼)이 나옵니다. 근년 계사년(癸巳年) 불기(佛紀)2557, 서기(西紀)2013, 단기(檀紀)4346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군조선 후에 동포(檀君朝鮮 後裔 同胞)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말고 고개와 마음이 아프지 말고 예(禮)를 지키고 정(情)을 나누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민족 역사상 처음있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잠잘 수 있는 현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언제부터인가 집안싸움으로 고통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은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강한자가 약한자를 제재(制裁)하면 반항(反抗)이 따릅니다. 경우(境遇)에 맞지않는 제재는 억압이 되지요. 탄압도 되고요 호족들이 부하를 탄압하다가 적국과 싸우면 적국인이 되지요 신라로 들어온 불교 통일고려에서 팔만대장경을 집대성 했고 조선개국 이세계 책사(策士)가 무학대사(無學大師)에 배불정책(配佛政策)을 썼고 임진왜란 때에는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송운대사(松雲大師 四溟堂)이 호국불교를 입중(立勳)했었지요, 이것도 잠시였고 배불정책(配佛政策)은 계속되었고 일본에게 망(亡)했습니다. 광복 후(光復後) 개신교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어졌고 대처승(帶處僧)들이 강제 이혼을 하고 비구, 비구니, 종단 조계종(比丘,比丘尼, 宗團 曹溪宗)이 신라 국찰(國刹)과 절찰법회(古刹法會)도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한 금산사와 법주사 까지 관리(管理)하는 관제불교를 만들어 억불정책이 계속되어왔다. 불가항력 이랄까 일본 식민통치 36년간 돈있는 사람들과 일본교육을 받았고 승가(僧家)에는 극소수(極少數)만 한문공부(漢文工夫)를 했었더라 한문자 대장경 공부(漢文字 大藏經工夫)를 못했것이 오늘날 신서불서 도서사전(新書佛書 圖書 辭典)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무신론(無神論)자들만이 해야할 기록문화유산(記錄文化遺產)이라는 희귀한 이름을 붙여서 사장(死藏)을 하고자 하는가? 노자(老子)가 창시한 도교(道敎) 선도(仙道)는 양주동(梁柱東)이 사장(死藏)을 시켰다. 한글사전에 도교는 노자가 주장한 허무주의 종교라 했고 도(道)는 지역 경계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 했다. 도덕경(道德經) 25장(章)에서 노자가 오부지명자지탈도(吾不知其名字之曰道)라 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몰라서 도(道)라는 글자를 썼다) 부처님께서는 모법연화경 약초유품에서 금세후세여실지(今世後世如實知)의 아시일체지자일체견자(我是一切知者一切見者) 지도자게도자설도자(知者道者說道者)라 했다. 금세후세를 똑같이 다 안다 후세인 2500년뒤 현재에 와서 얼마나 알고계시는가? 는 팔만대장경의 후속편인 격양유록 신천(新天)에서 제왕결계 수술 출산과 인공임신까지 예언을 하셨다. 내가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는 자다 노자가 쓴 도(道)를 알고 도를 열고 도를 말했다. 이 부처님께서는 노자의 도와 팔만대장경의 연결고리를 써 놓으셨고 이시대 양주동이 한글사전에서 말할진 것들 예언 하였고 다시 살려서 일기대도(一氣大道)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사회 지상선경(地上仙境)이 된다고 하셨다. 현재까지의 신앙은 부처님과 하나님께서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는 부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노자, 공자, 석가모니, 예수를 부처님과 하나님의 대행자(代行者) (불경에는 여래(如來)라 표기(表記)를 받는 성인종교(聖人宗教)와 성인신앙(聖人信仰)을 해 왔다. 현재의 불입(佛立)된 지(地)법(法)종교로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신과 태초조상(太初祖上)을 지구촌 세계가족이 한 부처님 한 하나님을 다 함께 모시고 일심으로 기도하여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능력(超能力)을 전수(傳受)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혁명 정신혁명을 구세주(救世主)께서 명(命)하신다. 이제 불교인(佛敎人)들은 해탈불교(解脫佛敎)로 한 단계 다가가 올라가야 한다. 현재의 참선(參禪)에서 합장염송기도(合掌念誦祈禱)하여 부처님 가피력(加被力)을 직접 받는것이 대승불교(大乘佛敎)다. 특히 조계종은 중원종법에서 보우국사의 계율부터 조은사(祖願思願)의 학맥(學脈) 때문에 대승(大乘)으로 갈수가 없다. 학승(學僧)들의 종단(宗團)이기 때문이다. 도승, 선승(道僧, 禪僧)이 나올 수가 없는 종맥을 깨달아야 한다. 금강경(金剛經)에 천안불안법안(天眼佛法眼)의 실제(實際)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도승, 선승(道僧, 禪僧)이 입을 열면 이단(異端)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은 가르쳐서 안되고 마음으로 알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년 2012년 사실사단단체총연합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대외외장에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불교 행사를 두 번 했다. 생각없이 지나쳐 버린 불교인들의 실상을 보면 한심하다. 내종단이 아니니까 광복후 이승만 정권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불교는 항상 계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신도수가 가장 많으나 표를 의식해서 절앞에서 일만거렸다. 금년 정초 올전에 있는 불경사에서 김지 담그는 영상이 방영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댓글에 해당되는 KBS TV 6시뉴스광장 시작전 경주에 있는 점성대와 황용사 비터가 방영되고 있다. 황용사를 불태웠던 몽골 정기간이 호령하던 시대를 지구 나용원께서 몽고에 바쳐주시잖아 현재의 몽골이 되었다. 팔만대장경 목각판이 강화도에서 해안사로 옮겨오게한 원인제공도 몽골이었다. 원광법사(성거)는 현재 국가최고지도자 몸과 와 있다. 김유신은 김일성으로 환생했다가 신의세계로 들어갔다. 문무대왕은 용왕님의 전권특사로 세계기사의 조화를 부렸다. 미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불안을 줄 때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우 폭설로 깨달음을 주고자 했지만 바보라서 모른다. 요즘 젊은이들 전쟁영화 드라마를 많이 시청을 해서 남북관계의 긴박한 현실을 드라마로 보듯 한다. 6.25에 참전했던 예비역들 그때 전쟁으로 생각해서 현대무기의 위력을 모른다 전쟁 뒤에는 폐허와 비참뿐이다. 이시간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남북간 군사 담판자 들은 전쟁직전 상황으로 TV를 통해 협박으로 주고 받는다. 팔천만 민족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현실은 자기들끼리는 상관없다. 3.11북핵추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다. UN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해서 대북제재를 하고 회교가 있는 절벽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삼팔선과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있는 백성들이 어떤 참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시뮬레이션이란 평가로 가상전쟁을 해보면 알수 있을까 답답한건 우리민족 뿐이다. 절박한 이때 전 불교인들은 힘을 모아 조용하게 평화운동에 동참하여 불교의 진가를 세계에 알리면 안될까? 이것이 우리민족의 화두(話頭)다.

2013년 3월 16일

21세기 디지털사찰 대광사 大光寺